

# 이긴자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그의 죄가 멸한다

옛날에 영모님이 찬송을 할 때에 은혜가 되므로 찬송을 쉬지 않고 부르라는 말씀을 했던 거죠?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를까요, 죄지를 생각하면서 부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바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라고 했고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변하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사람이 하는데,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이제 그대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마음이 움직이는 고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피로 변하는 고로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변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숨겨졌던 진리의 말씀이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이제 감추었던 지혜에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진리가 이긴자한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고로 오늘날 이긴자가 감췄던 말씀을, 감췄던 진리, 감췄던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렵

게 무릎 꿇고 이제 그대로 30일씩 40일씩 금식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인 고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될까요?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가짜 구세주가 나타나서 어렵게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고로 엉뚱한 말을 많이 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세주요, 진짜 하늘의 사람이 나오면 이루어지기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죽지 않는 만나를 먹는 비결, 죽지 않는 만나가 바로 죽지 않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나라니까 이슬처럼 내리고 눈송이처럼 하얗게 내리는 게 만나라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 성경 말씀이 영적 말씀이 아니죠? 영적 말씀이면 만나가 영이라야 말이 맞는 거죠? 영이 마음이나까 마음이라야 말씀이 맞는 거죠? 만나도 마음이에요, 이제 그대로 은혜도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이에요, 천당도 마음이에요, 지옥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데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런 멍텅구리는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이 아니야? 구제불능이요?

## 구세주를 생각하면 만사를 먹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제단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매일 같이 나오지 않으면 왜 구원을 못 얻느냐 하면 벌을 줘서 구원을 못 얻는 거죠? (아닙니다) 제단을 매일 나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죠? 제단에 매일



구세주 조희성님

나와야 매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일 같이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은 매일 같이 영생의 만나를 먹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만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영생의 피로, 영생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예배를 보지 않는 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로 직업이 있어서 사정에 의해서 저녁때에 나오는 건 좋은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굴러가지고 변치 않으면 되겠지 하지만은 여러분들, 매일 안 나오는 사람은 변하고 말아, 안 변하고 말아? 변하고 말아요.

왜 그러냐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생각보다는 마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 못하면 시간 시간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그러한

방편을 쓰러니까 비디오로 예배를 보거나 녹음테이프로 시간 시간이 예배를 보라. 그리하면 귀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귀생각이 날까, 안 날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들어오니까 하나님 생각이 자주 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죽지 않는 비결이요, 영생하는 비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루아침에 죄가 소멸될 수 없다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죽지 않는 자격을 갖추어야 죽지 않는 거지,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백이 있는 고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격에 맞는 말이야, 격에 맞지 않는 말이야? 이치가 맞지 않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지, 하나님이 안 되면 영생이 될 수 있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영생을 누리는 거지, 자격이 없으면 영

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기입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사람이 초창기부터 말을 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년 이년 해도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긴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이제 그대로 초초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 있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무량대수 마귀가 오염돼, 오염 안 돼? 이제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죄가 잔뜩 들어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죄가 오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멀리 미국에 가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대로 죄가 많으면 그 많은 죄가 몽땅 생각하는 순간 오염이 될까, 오염이 안 될까?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리 생각이 자주 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죽지 않는 비결이요, 영생하는 비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로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좌절하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좌절하면 이제 그대로 죄의 마음이 조성해주는 죄의 피가 소멸될까, 소멸 안 될까? 죄의 피가 소멸되어버리죠? 죄의 피가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기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전환

되는 고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의인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피로 변해야 이제 그대로 마귀의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기입니다.

## 다른 사람 생각하는 순간 오염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전부 오염이 되고 그 사람은 벗겨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긴자가 된 사람은 오염이 되어도 그대로 순간에 벗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도 이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벗겨지지 아니하니까 지옥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긴자가 되기 전에는 이제 그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아는 거죠? 전도를 해보면 몸이 가볍죠?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몸이 가볍다고 그러지? 그럼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전도할 때만은 전도할 때에 오염된 것만은 누가 벗겨줄까? 이긴자가 벗겨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 몸이 무겁다기도 하루만 지나가면 가벼워지죠? 누가 벗겨주는 거야? 영적 암마가 벗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긴자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기입니다. 이제 그대로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의 죄가 몽땅 벗겨지는 것이기입니다.\*

1989년 10월 28일 말씀 중에서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3장 야곱의 하나님》

# (11)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30년 만에 만나다

(지난호에 이어서)  
그리고 또 마귀는 야곱의 분처 라헬이 낳은 베냐민도 철저히 감시하였고 훗날 베냐민의 후손들을 거의 멸절시켰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는 바람을 담아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바람대로 그녀의 둘째 아들이 되는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베냐민이 산모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산파가 라헬에게 "또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라고 위로한 말이 그대로 적용하여, 마치 예언에 의해 태어난 아들처럼 마귀에게 비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  
이스라엘 군은 다시 베냐민의 민간인들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 사람과 짐승을 만나는 대로 칼날로 치고 그 처치는 성읍마다 불살랐더라

라헬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레아의 자식 르우벤이 발정난 개처럼 되어 라헬의 몸종 빌하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지만 빌하의 거센 저항으로 마수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의 짐승을 다렵힌 것입니다! 이는 이미 레아의 자식들, 르 1 일부 문헌에서는 사실 르우벤이 빌하를 범하지 않았고, 야곱이 레아보다 빌하를 아끼는 것에 분노하여 빌하를 해쳤다고 전한다. 이 문헌에 의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의 죽음 이후 정실의 자리를 빌하

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가 세 겹 성읍의 남자들을 도륙할 때에 르우벤과 유다만이 세겹의 처녀와 부녀자를 강간하여 그 자신들의 피가 율란한 피로 더러워진 데에서 기인되었습니다. 마귀가 음란으로 더러워진 피를 타고 손쉽게 르우벤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관념이 강한 빌하가 주인 야곱의 낮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르우벤에게 육보임을 당한 그날에 자신의 짐승에서 자결한 것인지 아니면 르우벤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칼로 빌하를 살해했는지 모르지 빌하와 르우벤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빌하는 야곱에게 자신을 육보이려고 한 자가 르우벤이라고 일러바치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는 참극이 일어날까봐 죽어가면서도 잠잠하였습니다.

하지만 빌하의 죽음 앞으로 모여든 야곱의 가족 중에 유독 르우벤만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하고 사사나무 꺾듯 몸을 떨리게 남겨주려고 하자, 분노한 르우벤이 빌하의 침상을 치워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르우벤은 자신의 행동을 즉시 뉘우치며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했다. 이런 점 때문에 호세아가 그의 후손 중에서 나왔고, 말세에도 르우벤 지파는 특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유대교 기록이 있다. -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르우벤>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직 야곱만이 르우벤의 심령을 관찰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3-4절  
르우벤아, 나는 네 장자요 나의 능력이야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나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 (11)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30년 만에 만나다

야곱 107세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은 그 해에 기랴아르바(헤브론)의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30년 만에 상봉하였습니다. 167세의 이삭은 그 해에 아내 리브가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아들 야곱이 그의 손을 잡아도 무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소개하고자 하니, 이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관두어라.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손자 소개를 받아본 듯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손자들이 세겹에서 행한 끔찍한 일로 충격을 받아 리브가가 죽게 된 것을 뇌리에 떠올리며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몸종 빌하를 통해 낳은 단에게 은밀히 장자상속을 한 이후 30년째 되던 해에 라헬의 몸에서 요셉을 얻었습

니다. 그는 이미 단에게 장자상속을 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상속은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몸에서 아들 요셉을 얻자 날뛰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야곱은 야기 요셉을 물고 빨고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좋아하였고 다른 아들들이 시기할 만큼 편애하였습니다. 심지어 요셉에게 소매가 길고 무릎까지 내려가는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마귀가 요셉이 장자상속을 받을 지라도 여기게 되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영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야곱은 여러 가지 채색을 수놓은 옷에 장신구까지 단 색동옷을 지어 요셉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우거하던 땅에 거한지 한 해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17세의 요셉은 그 형제들과 더불어 양떼를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날은 헤브론 마므레 천막에서 서북쪽으로 20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아들람 성읍 변두리까지 양떼를 물고 가서 풀을 먹



부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자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형제들

게 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의 열두 형제들 가운데 21세의 유다가 아들람 성읍에 사는 처녀를 끌어들여 통간하였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동생 유다만이 아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유다의 통간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요셉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여인과 통간한 유다와 그 일을 방관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 칠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침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레아의 아들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어느 날 요셉은 곡식밭에서 일어난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을 베는 일은 다 끝나고, 이제는 곡식을 단으로 묶는 일만 남았었습니다. 요셉이 곡식 단을 묶어서 밭에 다 놓았더니만, 별안간 그 단이 벌떡 일어서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묶어놓은 단

들이 그 둘레로 쭈뼛어서서 요셉의 단을 바라보고 깊이 머리들을 숙이듯이 절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이 하도 이상스러워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형들은 몹시 화가 나서 "오냐, 너는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너한테 머리를 숙이게 하고 싶다는 거지? 네가 왕이 되어 우리들을 다스린다고! 별 건방진 꿈을 다 꾸네." 이렇게 화를 내고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